



그분과 함께하는 이야기 (대만 12 호)

이섬김, 황사랑, 은우, 성안, 세희
33 호 2023 년 2 월 6 일



사진 1

사진 2

카톡 아이디	1002lhh	후원	KEB 하나은행 9900-147-05200 예금주: KPM 이섬김
이메일	justfaith74@naver.com		

사진 1, 2022 년 대만 충효교회 성탄절 행사 후 속도하는 이섬김 선교사

사진 2, 대만 충효교회 대학생(이름:주관위) 학교(천주교 푸런대학) 방문

작년 10 월 29 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장례 후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 내실 수 있도록 어머니와 시간을 조금 더 보낸 후 11 월 30 일에 가족들과 함께 대만으로 복귀해서 대만 충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모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암투병을 하고 계신 아버지와 아버지를 간호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몇 번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천국의 소망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안식년의 시간을 마치고 대만에 복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전화로 아버지, 어머니께 전했는데 저의 뜻을 받아 주셨고 모교회인 창원영광교회 담임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급하게 결정해 주시고 거동하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집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 일 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된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하였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도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대만 복귀 후 저로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아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사역이든 생활이든 자녀들의 미래나 진로에 있어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게 하십니다. 또한 최근에는 나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모세와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형제자매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강대상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들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더 감사가 되어집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대만의 문화는 급하게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 먼저 오셔서 사역하시는 선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되 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년 9 월 교회 첫 설교부터 나누었던 제자훈련을 오는 2 월 셋째주 주일에 10 주 과정의 새신자 성경공부 교제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번주 주일에 교회 집사님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오신 집사님 친척 두분이 계신데 이번 주 심방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분들과 기존의 성도님들과 함께 새신자교육 겸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교회에 나오지 않아 어떻게 될 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보내주신 분들인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또 조만간에 주일 예배 전 찬양을 할 찬양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팀을 구성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집사님과 주일 학교 전도를 위해 일주일에 두번 교회에서 무료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과 전도대상자인 학생들이 잘 모집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유일한 대학생 형제를 이번 주 중에 만나 교제하려고 합니다. 집사님의 자녀이지만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는 친구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통해 청년 대학부 사역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또한 대만에 오신지 1 년반 정도 되시고 언어과정을 하면서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는 한분 선교사님과 함께 타이베이 국립사범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가운데 귀한 영혼을 허락해 주시고 대학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큰 아들 은우는 대학 1 학년 2 학기를 마치고 방학 중에 저희 어머니 집에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한 이후 믿음이 많이 자라 하나님을 매순간 인정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둘째 성안이는 작년 대학 연기연극학과를 진학하기를 원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이번년도에 다시 대학진학을 도전합니다. 4 월에 검정고시도 다시 보고 수시로 대학진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셋째 세희는 대만에 돌아와서 집 근처 현지 중학교 1 학년으로 전학해서 학교를 다녔고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고 있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아내 황사랑 선교사는 저와 함께 심방을 준비하고 있고 점점 그 역할을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도록
-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도하는 저와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 주일학교 전도를 위한 방과 후 영어, 수학교실이 잘 준비되어지고 대학전도와 대학청년 사역가운데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고 제자삼을 수 있도록
-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 큰 아들 은우의 대학기숙사 또는 자취방이 잘 구해지게 하시고 둘째 성안이의 대학진학과 막내 세희가 현지학교에 잘 적응하도록